



지도신부 편지

백만 명의 어린이들이 묵주기도를 바치니 온 하늘나라가 귀를 기울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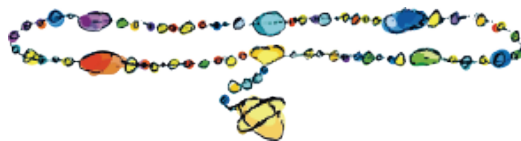
사랑하는 가정들, 교사들 그리고 전 세계의 어린이 여러분,

수많은 사람이 불안, 걱정 그리고 두려움에 떨고 있는 이 시대에, ACN은 올해로 20주년을 맞는 전 세계적인 기도 캠페인 “100만 어린이의 묵주기도”에 여러분이 함께 해 주시길 진심으로 바라며 초대합니다. 올해도 10월 첫 주, 특히 10월 7일 ‘묵주기도의 복되신 동정 마리아 기념일’에 모든 대륙의 어린이들이 모여 평화를 기원하며, 단순하지만 강력한 묵주기도를 바치자고 호소하는 것입니다. 묵주기도는 평화를 희망하고 얻을 수 있는 확실하고 검증된 방법이며, 우리는 특히 ‘희망의 희년’을 맞아 더욱 큰 신뢰를 갖고 평화의 길을 걷고자 합니다.

교황 성 요한 바오로 2세는 교황 교서 <동정 마리아의 묵주기도>에서 묵주기도에 관한 자신의 진솔한 체험을 고백하셨습니다. “기쁠 때나 슬플 때나 저는 언제나 묵주기도를 바쳐 왔습니다. 저의 모든 근심을 묵주기도에 의탁하였으며, 그 안에서 저는 언제나 커다란 위안을 얻었습니다.”(2항)

우리는 하느님께서 어린이들의 기도에 특별히 귀 기울으신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아마도 어린이의 순수한 마음과 온전한 신뢰에서 나오는 목소리

이기 때문입니다. 어린이 같은 믿음의 본보기인 성녀 소화 데레사는 기도를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저에게 기도는 마음을 드높이는 것입니다. 하늘을 올려다보는 것이며, 인정하며 사랑하는 외침으로, 기도는 시련과 기쁨을 모두 포용합니다.” 어린이들이 묵주기도를 바칠 때 바로 이런 일이 일어납니다. 예수님, 성모님 그리고 상처받은 세상 앞에 자신의 마음을 여는 것입니다.



“100만 어린이의 묵주기도” 캠페인은 오상의 성비오 신부님의 아름다운 말씀에서 영감을 받아 시작됐습니다. “100만 명의 아이들이 묵주기도를 바치면 세상이 분명히 달라질 것입니다.” 어린이들의 기도 앞에서 하느님께서 특별한 권능을 보여주십니다. 벽을 무너뜨리고 상처를 치유하며 어둠 속에서 빛을 가져오는 힘입니다.

2005년 남미 베네수엘라 수도 카라카스에서 시작된 작은 어린이 기도 모임이 ACN과 많은 신실한 가톨릭 신자들의 지지로 이렇게 전 세계적인 캠페



인으로 성장했습니다. 지난 20년간 어린이들의 기도가 세상을 바꿀 수 있다고 믿는 사람들의 숫자가 놀라울 만큼 늘었습니다. 게다가 “희망의 순례자”라는 주제로 교회가 기념하고 있는 올 희년에, 어린이들의 기도는 우리가 이 세상에서 하느님의 권능을 믿으며 하나 되어, 자신감 있게 희망을 품고, 앞으로 나아가고 있음을 보증하는 눈으로 볼 수 있는 표지입니다. 묵주기도를 바치는 어린이들은 성모님과 예수님과 함께 그리스도교 신앙의 핵심적인 신비를 묵상하며, 수많은 가정, 국가들과 우리 시대에 희망을 전하는 희망의 작은 순례자들입니다.

지난 몇 년간 여러 나라에서 긍정적인 기도의 열매가 맺어졌습니다. 그러니 여러분도 이 기도 캠페인에 동참해 주시기를 간곡히 청합니다. 처음에는 쉽지 않아 보일 수 있지만,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발휘해서 어린이들이 학교, 가정, 본당 그리고 유치원과 같은 곳에서 묵주기도를 하도록 격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린이들이 혼자서 기도하는 것도 좋습니다. 혼자 기도하든 함께 기도하든, 묵주기도 5단을 다 바치든 한 단만 바치든, 모든 기도는 소중합니다! ACN 웹사이트에는 유용하고 또 어린이들이 좋아할 만한 자료들이 많이 있습니다.



“100만 어린이의 묵주기도 페이지 홈페이지”

이 희년에, 희망의 어머니이신 성모님과 함께, 어린이들의 마음에서 우러나와 전적인 신뢰로 표현되는 기도의 큰 물결이 전 세계로 퍼져나가는 데 도움을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헌신에 감사드리며, 저의 사랑을 담아 축복을 전합니다. ✝

안톤 레서 신부

ACN 본부 지도 신부

P. Anton Leseur OP